先史時代에 있었을 우리 民族服飾을 생각하며

柳 喜 卿*

Conjectual Study on Korean Costume in the Prehistoric Period

Hi Kyung, You

<目 次>

머 리 말
Ⅰ. 先人의 衣生活
Ⅱ. 服飾의 起源
Ⅲ. 服飾 型式
Ⅳ. 先史時代에 있었을 우리 服飾
맺 음 말

Abstract

In the vast extent of time, man and his ancestors have existed on earth about 2,000,000 years. For Near-Man, they knew how to make fire and protected themselves with hairs. Old-Man covered their bodies with the skins of wild animals. New Man improved the quality, the range and ingenuity, so they fabricated clothes with the animal skins. New Man is considered as ancestor of Modern Man. They had spread widely over the earth to take advantage of their surroundings. The next period, New Stone Age was chiefly distinguished by agricultural age. He was now about to make clothes from natural fibers.

The two most obvious orgins of clothing are to protect the body against environment and to decorate the body. The forms of clothing were different from the various climates and regions they had settled, for example Yo-po Hyung (Apron), Kwae-po Hung (Sewn garment), Kwan-doo Hyung (Poncho), Chun-kae Hyung (Frontopend garment), Chai-hyung Hyung (Body-conforming shape).

Our ancestor had moved from Baikal Lake, Central Asia toward northeast; Shuntung in China, Manchuria and at last Han Panninsula. Considering our basic costume of ancient times were Yu(jacket), Ko(trousers), Sang(skirt), Po(coat) with the accessories of Kwan (crown), Mo (hat), Dai (belt), Hwa, Eie (footwear), here I conjecture our costume of prehistoric period was Chaihyung Hyung(Body-conforming shape) in the purpose of body covering.

* 梨花女子大學校 衣類織物學科 敎授

머 리 말

先史時代에 있었을 우리 民族의 服飾을 알아본다는 것은 現在로서는 어디까지나 想像에 불과하다. 그러나 人類가 이 地球 위에 생겨나 몇 百萬年을 지내오는 동안 原始生活에서 어떻게 해서 衣生活을 시작했는가를 더듬어 봄으로써, 또 그 衣生活은 어떠한 目的을 위해 어떻게 그 服飾을 갖추게 되었는가를 알아 봄으로써, 우리 民族의 發生·移動과 氣候·風土의 條件 등을 감안하여 나름대로의 推理는 可能하다고 본다.

현재 우리는 有史時代에 있어서의 우리 民族 服飾文化에 대한 것도 제대로 糾明을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면서 여기에까지 손을 뻗쳐 알아본다는 것은 하나의 冒險이라고도 하겠으나, 服飾原論的인 것도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는 立場이기 때문에, 우선 問題를 던져본 것이다. 그리고 이로써 上代社會 우리 民族 固有服飾에 대한 것도 그 發生과 發展에 좀더 意義와 價値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이기도 하다.

이에서는 먼저 人類의 發生과 더불어 衣生活의 發端을 찾아보고, 그것이 어떠한 目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는가를 推理해 보고, 이로 말미암아 실지로 그들은 어떠한 型式을 찾아 衣生活을 營爲하기 시작하면서 充足시켜 나갔는가를 가볍게 다루어 보기로 한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民族은 이의 어떠한 경우에 해당한 것인가를 알아 보기로 한다.

그러면서 本稿는 너무나도 엄청난 것을 다루면서 焦點이 막연함을 免치 못하는 가운데, 다만 하나의 問題 提起에 그치는 것으로 해 둔다.

Ⅰ. 先人의 衣生活

오늘날 밝혀진 人類學 내지 考古學의 定說에 ,르면, 人類가 진화하여 地球上에 나타난 것은 약 200萬年 전이라고 한다. 당시의 人類는 다른 哺乳類 動物과 다름이 없는 것이어서, 전신에 體毛가 나고 이로써 추위와 더위 또는 비·바람을 견디어 내고 접촉하는 自然物 등에서 보호되었던 것이며, 따라서 몸을 가리는 아무 것도 사용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裸體로 지내왔던 것이다.

그런데 哺乳類 動物들에게 體毛가 나게 된 것에 대하여는, 지금으로부터 23,000萬~6,700萬年 전에 해당하는 소위 地質學에서 말하는 中生代에 恐龍·魚龍·翼龍 등의 거대한 爬蟲類가 온난 습윤하며 沼澤地가 많고 灌木이 우거진 땅 위에 횡행하고 있을 때, 이들을 피하여 멀리 떨어진 寒冷 不毛의 土地에 숨어 살던 그들에게 그 견디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生存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츰 體毛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은 氣候·風土에 적응하여 진화해 가면서, 中生代 말기 白堊期에 일어난 地球의 一大變化를 만나 전기 爬蟲類가 절멸하고, 이에 대신하여 新生代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地球의 主役을 맡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 哺乳類 중에서 가장 고도로 진화하여 진실로 人類라고 불리우는데 알맞는 오스트랄로피매테스(Australopithecus)라고 명명된 種屬이 나타나기까지에는, 실로 약 200萬年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이들은 數 10萬年 동안 진화하면서 進步型 오스트랄로피테커스가 되고, 그 化石은 南아프리카 등에서 발굴되고 있는데, 이들은 猿人(ape man)이라고 불리어 直立 步行하고, 礫石器라고 하는 가장 원시적인 石器를 사용하고 있기도 한 것이다.

이에 이어 나타난 것이 80~40萬年 전의 소위 피테칸트로푸스 에렉터스(Pithecanthropus erectus)라고 하는 자바原人(Primitive man)과 시난트로푸스 페킨넨시스(Sinanthropus pekinensis)라고 하는 北京原人이다. 이들은 粗製이긴 하나 돌을 부수어 石器를 만들고 貝殼에 구멍을 뚫어 裝身具를 만들고 있으며, 특히 北京原人은 이미 불(火)을 사용할 줄 알았다. 그동안 地球는 3회의 氷河期를 겪고 있으니, 여름이 없는 한냉한 氷河期가 몇 萬年 계속된 것이다. 그리하여 衣服이라는 防寒具를 발명해내지 못했던 猿人이나 原人들은 裸體로 지낼 수 밖에는 없었고, 자연히 그 體毛가 다른 짐승과 마찬가지로 保溫의 機能을 발휘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原人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네안데르탈人(Neanderthalensis) 곧 舊人(Homo sapiens)이다. 이들이야말로 人類로서 처음으로 衣服을 發明한 사람들이다. 이 舊人들의 衣服 發明은 지금으로부터 10~5萬年 전의 일로서, 第4 氷河期에 들

어선 아주 한냉한 時期였다. 그들은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사냥해다 잡아먹은 짐승의 毛皮를 가지고 몸을 가리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면 그 體毛로써 추위를 견디어낼 수 있었던 猿人이나 原人과는 달리, 舊人에게는 이 體毛가 退化했다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하여는 사람의 發汗機能의 진화와 더불어 이와 반비례하여 體毛의 退化가 이루어져 갔다는 說이 있다.

이와 같이 처음으로 毛皮라고 하는 衣服을 입기 시작한 舊人 네안데르탈人의 衣生活의 모습은, 남겨진 住居址와 遺骨이나 石器類의 직접 자료와 현재 1年 중 氷雪 속에서 한냉과 싸우며 생활하고 있는 에스키모의 衣生活과 비교하여 얻은 간접 자료에 의해 상상할 수 있는데, 유럽 중부를 중심으로 하여 살고 있던 그들은 第4氷河期가 닥치자, 냇가 가까운 洞窟을 찾아 住居로 삼고, 男子는 사슴·멧돼지·野生의 소나 말 등을 狩獵하며, 女子는 먹다 남은 짐승의 毛皮의 안을 돌칼 등의 剝器로 살을 긁어내고 이것을 들판에서 펼쳐 말려서는 굳은 毛皮를 손으로 비벼 부드럽게 하여, 이로써 防寒을 위해 식구들이 몸에 둘렀을 것이다. 또한 이 毛皮로써는 잠자리의 寢具로도 삼았을 것이고, 洞窟 入口를 가리어 찬 바람을 막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는 동안 骨針이 발굴된 것으로 보아 에스키모처럼 짐승의 가는 힘줄을 縫絲로 삼아, 毛皮를 몸에 맞고 입기 쉽게 하는 方法도 연구해 냈을 것이다.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크로마뇽(Cro-Magnon)人으로 新人이라고도 한다. 그들은 전에 살던 人類보다는 훨씬 知的 能力이 진보되어 있었으며, 그 형태상의 特徵도 현재의 우리 人類와 거의 비슷하여, 바로 우리의 直系 祖上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원래 3,4萬年 전 第4氷河期 후기경 南西아시아, 地中海 沿岸地域에서 진화 발달하여 유럽에 이동하였는데, 발굴된 프랑스의 洞窟名을 따 크로마뇽人이라고 命名된 것이다. 이 新人들은 다시 世界 各地에 이동하여 지역적으로 다른 人種으로 분화하고, 현재 地球上에 분포하고 있는 여러 人種의 祖上이 되었다고 한다.

이 新人들의 文化는 舊人인 네안데르탈人에 비해 훨씬 고도로 발달하여 石器나 骨角器 등의 道具도 진보하고, 衣生活에 있어서도 毛皮衣料의 제작과 着裝에 일단의 약진이 있었음을 遺物에서 나오는 작은 像이나 副葬品에서 나오는 裝身具, 특히 그들의 특색을 잘 나타내고 있는 洞窟畵 등에서 엿볼 수 있다.

第4氷河期가 끝나면서 地球가 차츰 온난해지자, 新人들은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 世界 各地에 분포하게 되고, 新石器時代를 맞이하여 아직까지의 狩獵 採取에 의한 생활에서 定住農耕時代로 나아가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때에 와서는 人類의 生活 가운데 天然纖維 衣料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며, 人類는 비로소 진정한 服飾生活을 갖게 되어, 약 1萬年이라는 歲月을 지내오고 있는 것이다.

Ⅱ. 服飾의 起源

이제 人類는 天然纖維 衣料의 발견·가공으로써 服飾다운 服飾을 갖추게 되기 시작하였거니와, 이에서의 服飾의 起源을 목적론적인 견지에서 들어 본다고 하면, 크게 나누어 人體 防護와 身體 裝飾이라는 두 가지로 大別할 수 있을 것이다.

人體 防護는 防寒·防暑·防侵을 목적으로 하여 服飾하는 것이며, 이는 곧 服飾을 人體의 第2皮膚로 보는 것이라 하겠는데, 環境適應說은 이에 해당한다.

防寒을 위해서는 전술 10~5萬年 전 第4氷河期에 부닥친 네안데르탈人들이 그 강추위를 막기 위하여 毛皮를 입기 시작하였다는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防暑를 위해서는 熱帶의 原住民들의 裸體에 가까운 生活로 보아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으나, 例를 들어 中央아시아, 아프리카의 砂漠에서는 日射가 攝氏 40~50度가 되는 수도 있어, 溫度는 높고 濕度는 낮아 人體로부터의 水分 증발이 심하여 發汗을 막기 위해서나 日射를 막기 위해서도 全身을 덮어 싸는 것이 효과적이고 保健的인 까닭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民族服飾은 모두 머리 끝에서 발등까지를 엄폐하는 型式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防侵이란 外物에 의해서 傷害를 입거나 害蟲이나 爬蟲類 등에 찔려 물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衣料로써 몸을 包被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身體 裝飾은, 人間의 본능적 욕구는 자기 保

存에 있는 것이라 하고, 또 人間이 食慾이나 性慾의 안정을 얻은 다음의 최초의 心的 慾求는 몸을 장식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未開人이 塗色·文身·變形 등에 의한 身體에의 加工, 몸 어디에나 편리한 곳에 늘이거나 두르거나 하는 裝身物, 그것들에 대한 그들의 강렬한 애착으로 보아 장식은 그야말로 衣服의 祖上이라고 추론하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이를 護符·象徵·性差·審美 등의 목적에서 전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측도 있다.

護符說은 護符, 즉 부적을 몸에 지니는 데서 이것이 차차 장식화하여 裝身具가 되어 服飾을 이루게 되었다는 說이다. 原始人들은 불의의 재앙이나 병을 가져다 주는 惡靈을 근접시키지 않고 順産이나 행운을 가져다 주는 善靈에 수호되도록 특정의 物體, 예를 들면 貝殼·돌·깃·이빨(齒牙)·뼈·잎(葉)·열매 등을 끈 같은 것으로 몸에 매어 달아 부적으로 삼아,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지니고 있는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 준다고 믿었던 것이다.

象徵說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심볼로서 몸에 간직하고 있던 物體가 어느 사이엔가 裝身具化하였다는 생각이다. 强한 者, 有力한 者, 酋長 族長 등이 그 상징으로서 稀少價値가 있는 그러면서도 눈에 잘 띄고 식별이 쉬운 물건을 徵表로 삼은 데서, 이것이 服飾化했다는 것이다.

性差說에는 羞恥說과 異性吸引說이 포함된다. 羞恥說이란 異性에게 보여서는 안될 恥部를 엄폐하기 위한 데서라는 것으로, 이것은 聖經의 創世記에서도 示唆되고 있는 것이며, 原始衣服이 허리의 纏絡物에서 발전하였다고 보는 것도 이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異性吸引說은 種族保存說·性慾說이라고도 하는데, 衣服은 男性이나 女性이 서로 異性을 끌려는 동기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이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恥部를 가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눈을 끌기 쉽게 하는 장식을 베푼 데서 비롯하였다는 것이다.

審美說은 아이들이 자라 철이 들어 美意識을 갖게 되면 자기의 몸치장을 하려고 들듯이, 原始人도 아름다운 꽃이나 빛나는 貝殼·自然石 등을 보자 審美感에 눈떠 이를 가지고 장식하게 되었으며, 衣料를 몸에 감싸게 되어서는 이를 服飾化해 갔다는 것이다.

Ⅲ. 服飾 型式

오늘날의 各 民族의 服飾構成으로 볼 때, 전술 服飾의 起源에서 열거한 人體 防護 및 身體 裝飾 등의 여러 說은 서로 관련이 있거나 복합된 것으로, 어느 하나의 說만을 들어 그것이 服飾의 起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服飾의 型式도 人種에 의하여, 地域環境에 의하여, 生活文化의 정도나 내용에 의하여 매우 많은 양식으로 分化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서도 이를 大別할 수는 있으니, 그것은 腰布型·掛布型·貫頭型·前開型·體形型의 다섯 가지 類型이다.

腰布型은 腰紐型·腰衣型·紐衣型이라고도 하며, 주로 허리둘레를 紐나 布나 植物體로 덮거나 두르는 형식이다. 가장 간단한 것은 한 줄의 끈을 두른 것뿐의 히프밴드, 웨스트링 등으로부터 폭 좁은 布片을 두른 古代 이집트의 로잉크로스(腰布), 古代 中國의 蔽膝, 熱帶 原住民이 상용하는 허리에 걸친 도롱이(蓑衣) 등 여러 모양이 이 형에 포함된다. 이것들은 모두 원시적이며 熱帶系인 것이 특색이다.

掛布型은 垂布型·捲布型이라고도 하며, 腰捲式의 것도 이에 속한다. 이것은 한 폭의 布를 어깨에 걸치기도 하고, 팔에 걸치기도 하며, 허리에 둘러 늘어뜨리는 型式으로, 古代 로마의 토가(toga)는 유명하다. 이 토가는 廣幅의 긴 布地를 전신에 걸치고 늘어뜨린 것으로, 그 모습은 실로 우아하며, 로마의 市民服으로 격식화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이밖에 파라, 히마티온(himation) 등에서부터 현대 인도의 샤리에 이르기까지 衣服의 형으로 성형되지 않은 非成形 衣料를 가지고 人體를 덮고 싸는 이러한 형식을 掛布型으로 總稱한다. 이것을 우리 나라에서는 高句麗 古墳壁畵 天女圖와 慶州 附近 出土 新羅 女瓦飛天文에서 볼 수 있다. 이 형식도 주로 熱帶 내지 亞熱帶 계통의 것인데, 南美 南端의 테라 델 훼고(Tierra del Fuego)島의 오오나族과 같이 南極에 가까운 寒帶地域에서도 구아나고의 毛皮를 가지고 어깨에서부터 全身을 싸고 있는 風習을 볼 수 있다.

貫頭型은 布地 가운데에 머리를 꿰는 구멍이 있어, 머리를 꿰서 着裝하는 형식의 것으로, 南美의 안데스 原住民인 인디오가 상용하고 있는 판초는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것은 벗으면 담요로써 사용되고 입으면 만토가 되는 兩用의 機能을 가지고 있다. 古代 그리스의 키튼, 페프로스 등을 비롯하여, 옛 中國이나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褙襠은 이에 속한다 할 것이다. 이 貫頭型은 古代로부터 現代에까지, 原始부터 文明에 이르기까지 世界 도처에서 응용되고 있는 형식으로, 亞熱帶 내지 溫帶 계통의 衣服인 것이 특색이다.

前開型은 카프탄型이라고도 하며, 옷 앞자락이 터져 있어 이를 交衽 또는 合衽하고 帶를 매는 식의 상하가 연속된 원피스형의 것이다. 카프탄은 터키의 民族服으로, 이 前開型의 가장 형식화한 것이 우리 上代社會 固有服飾 基本型袍라 할 것이며, 日本의 和服, 蒙古服, 티벳服, 부탄服도 서로 공통된 형식이라고 할 것이다. 이 형식은 溫帶地域에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體形型은 人體와 같은 형으로 조형된 衣服型式으로, 胴體의 옷·팔에 끼는 袖, 두 갈래진 袴가 組合된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胴衣와 袖와 袴가 別個로 되어 있어 각기 독립된 三部式인 것이 원칙이나, 흔히 上衣는 胴衣에 袖를 붙여 입는 것이 慣例로 되어 있으며, 袖만을 따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中央아시아의 韃靼風의 獨立袖는 그 한 例이다. 이 筒袖의 上衣에 兩股의 下衣(또는 裳같은 下衣)로서의 體形型 服飾 형식은 일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體形·生理·心理에 가장 적합한 기초적이며 기능적인 服飾의 형태인 것으로, 古代부터 모든 時代를 통하여 모든 地域에서 채택되어 온 服飾의 礎型인 것이다. 이 礎型인 體形型은 일반적으로 寒帶系의 服飾에 많이 보인다.

Ⅳ. 先史時代에 있었을 우리 服飾

전술한 바 先人의 衣生活, 服飾의 起源, 服飾의 型式을 통하여 先史時代에 있어서의 우리 民族服飾도 어렴풋이나마 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 韓民族의 起源과 民族移動에 대하여 考古學界에서는 韓半島와 北九州 일대에 밀집 분포된 古人들이 中國 山東地域 및 滿洲와 바이칼湖 南端에까지 분포된 것과 靑銅器文化의 유사성에 주목하여, 韓民族 이동의 근원지를 바이칼 남단으로 추정하고 北東으로 이동하여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확실성 여부는 앞으로 좀더 폭넓은 연구로 밝혀지리라고 믿거니와, 아뭏든 우리 韓民族은 北方 胡族系統으로 通稱해 왔고, 따라서 先人들에게 衣生活이 있었다고 하면, 그 服飾은 前開型·體形型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으며, 여기에 他民族과의 交流와 더불어 그들의 腰布型·掛布型·貫頭型도 존재하였음을 否認할 수는 없다.

맺 음 말

위에서 先史時代에 있었을 人類의 服飾生活을 더듬어 보았으며, 우리 民族의 服飾도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推理해 보았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上代社會 服飾에서 보는 바, 그것은 마침내는 上體의 옷으로서 襦, 下體의 옷으로서 袴 또는 裳, 여기에 머리에는 冠帽를 쓰고, 허리에는 帶를 띠며, 발에는 靴 또는 履를 신어 包袍로서의 衣服의 형태를 갖추는 동시에, 그 위에 袍를 더함으로써 寒帶性 衣服 즉 北方 胡服系統의 衣服을 나타내어, 우리 民族固有服飾의 터전을 마련해 갔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다양한 修飾이 가해져 갔음은 贅言할 필요가 없다.

참 고 문 헌

大世界史(1, 文明의 誕生), 趙義卨 監修, 玄岩社刊.
朝鮮服飾考, 李如星 著, 白楊堂刊.
中國服裝史綱, 王宇淸 著, 中華大典編印會刊.
西洋服飾美術史, 河鰭實英 著, 家政敎育社刊.
東洋服裝史論考(古代篇), 杉本正午 著, 文化出版局刊.
民族服飾の生態(東書選書 36), 小川安郎 著, 東原書籍(株)刊.